

‘미스트롯2’ 톱7 “내 딸 하자”로 보답…확실한 노래 효도

톱7 첫 예능 ‘내 딸 하자’ 제작발표회

다정다감→애교쟁이 딸로 변신 포부

‘진’ 양지은 “1등 예측 못해…얼떨떨”

‘미스트롯2’ 톱7이 처음 도전하는 예능 ‘내 딸 하자’로 전국의 트롯 부모님들을 찾아 노래 효도 에 나선다.

2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TV조선 새 예능 ‘내 딸 하자’ 제작발표회 및 ‘미스트롯2’ 종영 기간간담회에는 톱7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이 참석했다.

‘내 딸 하자’는 ‘미스트롯2’ 톱7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김의영, 별사랑, 은가은이 특별한 사연을 보낸 트롯 아버지, 짠크들을 찾아가 노래 서비스를 하는 노래 효도 쇼다.

‘미스트롯2’를 향해 보내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시청해주신 트롯 아버지들의 사연을 받아 노래를 불러드리며 부모님들의 1일 딸로 활약한다. 오는 4월2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 된다.

‘미스트롯2’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전국의 트롯 아버지들을 찾아가 딸바보로 만들어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러 “다정다감한 딸이 되어드리고 싶다. 저는 부모님께 애교나 애정표현을 많이 하는 딸이다. 트롯 아버지들께도 제 매력으로 다가 노래 효도를 많이 해드리고 싶다”며 “제가 힘이 세다. 집안일부터 안까지 담당하겠다”고 웃었다.

선 홍지윤은 “직접 가서 노래 선물을 하는 장점이 있다. 사연자들을 만나 흥과 에너지를 담아 노래로 보답하고 싶다”며 “‘미스트롯2’에서 반전 목소리로 사랑받았는데, ‘내 딸 하자’에서 솔직하고 털털한 반전 성격을 보여드리겠다. 경연 때 밝고 경쾌한 노래 위주로 불렀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진중하고 차분한 노래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미 김다현은 “저는 착한 딸이다. 예의 바르면서 끼가 절절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진심으로 효도를 하겠다”며 “시청률 31%를 넘으면 언니 동생들과 서울 한복관에서 개다리춤을 추고 싶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별사랑은 “‘미스트롯2’는 랜선으로 만나서 느



까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지 몰랐다. ‘내 딸 하자’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힐링하게 됐다”며 “그 사랑에 두 배, 세 배, 네 배로 보답하는 톱7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은가은은 “톱7의 첫 예능인데, 제목 그대로 딸이 되어서 확실히 효도해드리겠다”며 “제가 개인기가 100개 정도 된다. 개인기를 하나씩 풀어

가는 끼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스트롯2’를 종영한 소감도 전했다. 양지은은 “국민들의 투표로 1위까지 올라오게 됐다. 감사함이 정말 크다. 예심 불 때부터 톱7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1등을 예측하진 못했다”고 돌아봤다.

또 탈락 후 다른 참가자의 하차로 재투입, 최

종 우승까지 거머쥐게 된 당시 기분도 떠올렸다.

양지은은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을지, 다시 돌아와서 도전해도 될지, 돌아와서 혹이나 실망을 안겨드리진 않을지 그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진은 생각하지 못했다. 더 얼떨떨하고 어깨가 무거웠다”고 밝혔다.

은가은은 “예심을 붙은 것만으로도 좋았다”며 “그런데 계속 올라오고 톱7까지 돼서 2주간 꿈 같았다. 특히 저는 계속 추가합격이어서 기적이었다. 아쉽게보다는 감사하다”고 미소 지었다.

‘미스트롯2’ 이후 주변도 달라졌다. 김다현은 “친구들이 달라져서 놀랐다. 저번에 학교에 갔을 때 사인만 30장 하고 왔다”고 웃으며 “톱7이 되고 난 후가 가장 행복했다. 팬들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했고, 노래를 많이 불러드릴 수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좋다”고 말했다.

김태연도 “팬들을 직접 만나서 게 가장 기대 된다”며 “콘서트가 곧 열리는데, 팬들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김의영은 “없던 사인이 생겼다. 아빠께서 제 노래를 인정해주고 기뻐하셔서 굉장히 뿌듯했다”며 “팬들이 사랑해주신 만큼 ‘내 딸 하자’에서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 시즌1 때 탈락 후 재도전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드리는 그런 딸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엠넷 ‘킹덤’, 무대 공정성 논란 사과…“세부적 고려 못해”



엠넷 ‘킹덤: 레전더리 워’가 첫 방송 전부터 일부 출연진의 무대 제작비 관련 공정성 논란

에 휩싸이면서 사과했다. 엠넷 ‘킹덤’ 측은 29일 “첫 경연인 만큼 6팀

내일 오후 7시50분 첫 방송

의 무대를 조율하기 위해 제작비를 설정했지만 범위와 가능 여부 등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없었던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러 “1차 경연 후 해당 부분에 있어 제작진도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최고의 무대를 위해선 아티스트의 크리에이티브를 최우선해야 하고, 무대 설치에 있어 모든 부분을 명확히 가이드로 제시할 수 없는 점 등은 조심스럽고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여섯팀과 여섯팀의 소속사와 사전에 긴밀히 대화해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집중하고 최상의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이어질 경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킹덤’은 첫 경연에서 무대 제작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그룹 무대에만 고가의 세트와 소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보이그룹 경연 프로그램 ‘킹덤’에는 비투비, 아이콘, SF9, 더보이즈, 스트레이 키즈, 에이티즈 등 총 6팀이 출연한다. MC는 동방신기가 맡았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유노윤호의 불참으로 최강창민이 단독으로 맡을 예정이다.

오는 4월1일 오후 7시50분에 첫 방송 된다.



다비치, 1년4개월 만에 신곡…내달 12일 공개

‘음원강자’로 통하는 여성 듀오 ‘다비치’(강민경·이해리)가 1년4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29일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다비치는 오는 4월12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다.

지난 2019년 12월 발매한 ‘나의 오랜 연인에게’ 이후 1년4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다비치는 그간 공백기 중에도 ‘사랑의 불시착’ ‘더 킹 : 영원의 군주’ ‘스타트업’ 등 인기 드라마 OST 및 고(故) 김현식 30주기 헌정앨범 ‘추억 만들기’에 참여하는 등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다비치는 2008년 데뷔했다. ‘미워도 사랑하니까’ ‘8282’ 등의 히트곡을 냈다.

뉴스

송해, 비대면 토크 콘서트 5월 개최

95세 최고령 MC

올해 95세가 된 대한민국 최고령 MC 송해가 토크 콘서트를 연다.

송해는 오는 5월7일 오후 7시에 비대면 토크 콘서트 ‘송해의 인생타비’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엠군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송해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지 못한 송해 선생님의 아쉬움을 담아 비대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남녀노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연을 들으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해는 올해로 방송과 함께 보낸 지 60여년이 됐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의 경우 1981년부터 지금까지 41년간 MC 자리를 지켜왔다. 그는 이번 ‘송해의 인생타비’를 통해 비대면 토크 콘서트까지 진출한다.

인생이 궁금한 20대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30대, 현실적인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40대, 재미있는 인생을 고민하는 50대, 인생 2막을 그려보는 60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 고민이 많은 70대까지 모든 세대의 고민을 들어보며 송해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공연 관계자는 “실제로 송해에게 궁금한 점은 혹은 자신만의 인생 고민을 공연 이벤트 메일 (songhaetvrent@gmail.com)로 사전 접수하면 토크 콘서트 당일 송해가 직접 답변하는 시



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전국노래자랑’에서 송해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신재동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점도 관람 포인트다.

송해는 신재동 밴드와 함께 다수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원그룹(주식회사 지나픽)과 월드케이팝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최고령 비대면 토크 콘서트 ‘송해의 인생타비’ 온라인 공연 관람권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티켓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 인종차별 반대…“진심으로 분노”

트위터에 ‘#StopAsianHate’·‘#StopAAPIHate’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30일 트위터에 한국어와 영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슬픔과 함께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전했다.

‘#StopAsianHate’(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StopAAPIHate’(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아시아인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방탄소년단은 “저희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시아인 왜 영어를 하는냐는 말도 들어봤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경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다며 “하지만 그때 겪

은 일들은 저희를 위축시켰고 자존감을 낮아기도 했다. 하물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저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시아인으로서 저희의 정체성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기까지, 또 저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할지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이 인권 관련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흑인

의 생명은 중요하다)와 관련, BLM 측에 약 100만 달러(약 12억9천)를 기부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지만, 한편에선 이를 경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 사이에서 혐오나 꼬투리잡기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의 한 라디오방송 진행자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코로나19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후주의 공영 방송과 그리스TV에서도 방탄소년단 외모 등을 비하했고 논란이 지속되자 사과했다. 특히 미국의 수집용 일러스트 카드 제작사 ‘톱스(Toppo)’가 ‘그래미 어워즈’를 기념해서 발행한 카드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두더지 잡기’ 게임기 속 두더지 방로 표현, ‘인종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이 불발된 것을 가학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것이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를 조롱 의도로 해석했다. 미국 빌보드가 해당 제품과 관련 링크를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게재하며 논란이 커졌다.